

August 21, 2016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449장(통377)

Prayer 기 도 성기현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삼하9:1-13

Choir 특 송 성가대찬양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윤종대 원로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구역예배/성가대연습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제사장 ▣ 본문: 출39:2-7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윤재은사모

▣ 감자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라톨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1. 2016년도 표어 "예수님 처럼, 예수님 처럼"(교회 역시 가족)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3. 8월달 행사안내

August "썸" August "썸" August "썸" August "썸"

-21일: 구역예배

-28일: 생일파티, 교역자모임

4. 대학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5. 입원: 김티파니(청년) 어머니(최정연, 노스리지병원)이 입원 하셨습니다.

6.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성기현장로)

7. 이철주목사님 군훈련마치고 사역 복귀하셨습니다.

8.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토요새벽기도: 27일 김옥련권사

#기도제목: 환우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조홍진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근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원로목사 : 윤종대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행정목사 : 이철주

▣ 협동장로 : 이화정

▣ 교육목사 : 에리얼 플로레스

▣ 전도사 : 황창원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자녀헌금: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교육부헌금: \$
선교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원수의 불행 / 삼하1:17-27

사람의 인격은 그의 원수를 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의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때에 왜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이것을 알아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강히 자기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부음받은 자를 자기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마 5:44,4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2. 다윗은 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19,20)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것이라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한 일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일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지어 부른 노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20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후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활레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3. 다윗은 사울의 장점을 기억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 이라고 하고 '용사' 라고도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리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 라고 합니다. 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울의 장점을 칭찬한 말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공평하게 평가합니다. 아니 오히려 후하게 평가합니다. 비록 자기의 원수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 다녔던 악한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며 그의 힘 그리고 그 부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높이 평가합니다.

4. 다윗은 사울과 함께 했던 군인들을 생각했습니다. (26)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원수 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원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불행해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지만 그와 함께 죽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결코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조선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4만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우리가 모르는 조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이 원폭으로 망한 것이 광복으로 이어졌지만 반면에 원폭으로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24: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롬12:14,15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시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